농촌지역 청소년 성의식 실태 및 환경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조옥라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연구위원장)

The Research on Youth Sexual Behavior and its Enviroment in Rural Area

Oak-La Cho

Korea Woman Farmers Research Institute

적 요

본 연구는 농촌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를 알아보고 성의식을 형성하는 환경요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한 교육적 ·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청소년 성의식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요인, 즉 청소년들이 속한 그 시대와 사회의 성문화, 청소년들의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정과 학교 등 환경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자아를 찾기 위하여 아동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을 부정적으로, 또는 흥미롭게 여기는 태도에서 성을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농가 전반의 물적 기반 훼손으로 가족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고, 낙후된 교육 · 문화적인 환경 등은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을 물질적 · 문화적 · 심리적으로 불균형적인 사회화의 과정을 겪게 하고 있다. 더구나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속한 그 시대의 성문화와 청소년들의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정과 학교 등의 환경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폭력 및 성과 관련한 비행문제가 여러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태도, 성폭력 실태, 유해환경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1)청소년을 미성숙한 지도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그들의 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인식과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성도덕 윤리의식을 크게 반영하는 것으로써, 보다 중요하게는 가부장적인 성문화를 기조로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인 성문화가 범람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3)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읽기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4)또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성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5)그 밖에도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유해매체와 시설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부분 도시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위주로 진행되어 농촌지역 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일은 별도의 과제가 되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농촌과 도시의 지리적 공간의 단축, 각종 대중매체와 시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서구문화와 도시문화의 유입 등으로 농촌청소년의 도시문화 접촉이 빈번해졌으며, 농촌사회 내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다양한 도·농복합형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농촌가족의 구조도 점차 핵가족화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등 종래의 도시와 농촌의 이분적 접근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농업이 소득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 많은 농가에서는 청장년층의 이농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직업을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여 농가 전반의 물적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다. 농가의 궁핍은 가족관계의 유대약화 등 가족기능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은 농가자녀의 사회화에 있어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 또한 낙후된 교육·문화적 환경 등으로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막연히 도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진학이나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함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밖에도 농촌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을 금기시하는 봉건의식이 잔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충동을 유발시키는 무분별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 등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기관으로부터 성교육을 받는 기회는 거의 없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으로 불균형적인 사회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농촌지역 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를 진단해 보는 일과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농촌사회 전반의 특성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를 알아보고 성의식을 형성하는 환경요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한 교육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과정

둘째, 농촌사회와 청소년

셋째, 농촌청소년의 성의식 실태 및 환경요인

넷째, 농촌사회의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모색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농촌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과정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청소년기의 성발달,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의 농촌 청소년의 현실을 그동안 축적된 선행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을 그간의 선행조사 · 연구자료와 비교 분석해 본다.

2) 조사연구

조사는 농촌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3) 연구의 한계

농촌청소년의 성의식을 파악해 보는 데에 있어 경기 여주와 충남 아산 2개 지역의 제도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조사내용상 집단면접의 방식은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될 수 있겠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과정

어느 사회이건 그 나름대로의 규범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의 관습, 교육제도, 부모, 대중매체 등을 통해 그러한 규범과 특성에 맞게 사회화되어 간다. 성(sexuality)과 관련한 태도, 인식, 행동, 규범 등도 시대에 따라, 그 사회의 성문화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회화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현모양처가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사실상 여성의 성이 통제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적 호기심이나 성과 관련한 감정과 행위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상스럽고 교양없는 일로 간주하여 왔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면 곧 육체적인 성행위나 감정을 떠올리는 협소한 성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과 관련한 인식과 태도는 세대간의 시기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학습 · 인식되어진다. 14세부터 19세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여 보면, 이 시기는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기며, 자아를 찾기 위하여 아동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생리기관의 성숙과 더불어 변성, 체격의 변화, 음모의 발달 등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육체적 · 정신적인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성적욕구를 수반한다[1].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과거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자기 스스로 사회규범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험하고 인지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에서는 '클 때까지는 성에 대해 되도록 모르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래나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되는 성은 상품화되어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문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며, 자신의 성과 상대방의 성에 대해 책임감 및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생리적인 가치에서 문화적인 가치로 승화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행동이나 의식도 단순한 생리욕구 차원이 아닌 성사회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을 금기시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고 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에 있어 그들의 시기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의 성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점과 더불어 성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행문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통로보다는 대중매체나 또래집단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화하는 일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교과목 수의 증가에 따르는 부담을 이유로 거의 무산된 상태이고,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 교육청에서처럼 중·고등학생용 성교육 교과서를 발간·배포하여 연간 5-1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교 재량껏 성교육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이다.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의 주무부처간에도 지도와 상담, 보호·감시 활동의 연계내용이 불투명하며, 성교육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많은 경우 "성교육은 오히려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남녀가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존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남녀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의식, 분별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건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개념설정은 청소년들의 임신과 분만, 성폭력, 최근의 비디오 제작사건 등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은 자연스러운 관심이며 부끄럽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체·생리적 변화에 따른 책임있는 인간의 감정이며 행동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해보면 학교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과 청소년 자신이 알고 있는 성지식과의 괴리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5, 6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6차에서 중학교 3학년의 체육에 '성역할 이해'와 고등학교 국민윤리에 '생명 존중과 윤리', '성과 윤리'가 첨가되었고, 5차에서 가정시간에 여학생들만이 학습할 수 있었던 '인간성장과 발달 및 청소년기의 특징'이 6차에서 남·녀 필수교과로 바뀌어 남학생도 가정과에서 제공되는 성교육내용을 접하게 되었다[3]. 이렇게 6차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내용을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성교육은 실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는데 학교급별로 성교육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간략하고 피상적으로만 기술되었다. 또한 그 내용이 단순한 생물학적 지식과 교훈적인 덕목의 주입식 내용에 치우치고 있어 성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의 성교육에 대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며, 생물학적인 지식 위주의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해서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성교제, 성행위와 그 결과, 성병 및 성기위생, 성피해, 성충동,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자세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타났다[5].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의 경우 성교육의 목표에서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논의, 대화식 지도 및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Hessen주의 성교육 목표도 청소년 스스로가 성에 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으며, 학교 성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간,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협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남녀의 성역할, 문화매체를 통한 비정상적인 성의 모습 등에 대해 깨닫게 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도 하나의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경우와 함께 여러 교과목에서 통합적으로 성에 관한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농촌사회와 청소년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인식, 행동, 규범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출된다. 따라서 농촌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사회, 즉 농촌사회의 소득구조와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가족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을 매개로 한 농촌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형태와 생활양식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된 측면도 있겠으나 국가의 농업정책과 가족정책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의 실시에 따라 2·3차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농업은 상대적으로 퇴보하여 왔고, 특히 국제화, 개방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더욱 가중되면서부터 농업은 직업으로서는 더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기피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가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바탕으로 전업농을 집중육성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지만 이는 일부 농지, 일부 농민, 일부 작목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엘리트농정으로 전체적으로는 농업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1)농업생산의 주체인 청장년층이 대규모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구조가 와해되고, 2)농업생산을 통한 노동가치의 실현이 저지되며, 3)농업소득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겸업농과 부채농이 증가하고, 4)농가 전반의 궁핍화가 심화되는 등 농가의 물적기반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6].

한편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이 스스로 부양체제를 작동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족원, 특히 노인과 아동 등의 안녕을 도모하는 가족을 통한 복지개념에 입각함으로써 농가는 가족생활의 물적기반의 훼손이라는 위기와 함께 농업생산의 지속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노동력과 토지 및 생산도구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①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전체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경작규모를 확대하여 소득작물을 증산하고자 했으며, ②자녀를 도시로 이동시켜 가족 소비의 극소화를 꾀하거나, 이들의 소득을 가족 차원에서 결합하여 궁핍화에 대응하고자 했고, ③최소한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받을 정도로 가족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7]. 이렇게 소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생산과 가족생활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결국은 자녀의 사회화가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불균형화되고 가족관계의 유대가 약해지며, 소비생활의 위축으로 가족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가족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부부간의 애정을 기본으로 자녀 출산, 양육과 자녀의 사회화라는 부모역할 수행이 중심이 되어 사회 재생산과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물질적, 심리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최소한 가족이 정서적 단위로서 애정에 기반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는 ①전통주의적 규범에 의한 사고의 온존으로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갈등이 좁혀지고 있지 못하며, ②농업생산의 중요한 단위인 노동력이 가족단위로 동원되고 있으며, ③부모들의 과도한 농업노동 종사로 현대사회의 전문화된 부모역할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며, ④소비 극소화로 인해 물질적, 심리적 기반이 훼손되어 있다.

한편 농가의 부모세대는 자식의 성공을 가족전체의 성공과 동일시함으로써 자녀의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과중한 생산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생산 이외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세대의 교육열과 일상생활의 고통은 오히려 자녀세대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 정서적 안정의 단위로서 따스함, 포근함 등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도시편향적인 가족의 모습은 농촌청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괴리감을 가지게 하고, 이는 도시지역의 청소년계층과 다른 정서적, 감정적 가치관 이외에 또 다른 가치

의식을 소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도 한다.

농촌사회에서 자녀교육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자녀교육을 위해 이농을 하거나 자녀를 교육환경이 더 좋은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농민들은 농경지를 확대하는 것이나 좋은 주택을 갖는 것보다 자녀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높은 교육열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1.4%, 중학생의 8.8%, 고등학생의 경우는 18.9%, 대학생의 경우는 80%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따라 농가의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고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의 악화와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녀교육 기대 수준에 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부모들은 아들은 87.8%, 딸은 82.1%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의 목적으로는 아들에게는 좋은 직업을 갖도록, 딸에게는 결혼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드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의 자녀교육에 있어 성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9]. 농가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점으로 인해 장남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차남 이하와 딸들에게는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취업이 요구되고 있는 등 농촌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따르는 성차별은 교육기대수준과 교육의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농촌청소년은 ①부모세대의 기대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 ②정서적 안식처이기보다는 작업장과 같은 가족생활, ③공교육과 자신의 현실생활과의 괴리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④이는 곧 일관된 가치나 욕구성향의 안정된 충족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10]. 또한 이러한 농가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은 농촌청소년의 가치와 사고방식, 행위양식 등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이농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가속화되는 이농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폐교와 함께 학교의 통폐합 및 복식학급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규모가 적다는 것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할 수 있어 도시에 비해 부진아가 적으며,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및 수업방식을 개발·적용한다면 오히려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11]. 하지만 학교규모의 영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크다. 학교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도시학교 학생들에 비해 특별활동 및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선의의 경쟁체제를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2과목 이상, 2개 학년을 담당해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중학생의 경우 통학시간이 20분 이하인 경우가 30.5%인데 비해 농촌의 경우는 40분 이내가 40.2%, 1시간 이내는 22.2%, 한 시간 이상은 7.1%[12]로 나타나는 등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귀가길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교육시설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져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학교의 이러한 영세함은 우수한 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도 나타난다. 농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한 벽지수당은 1986년 이후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복식수업을 위한 수당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열악함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청소년들은 이처럼 사회, 가정,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도시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및 규범의식의 틈바구니에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전통산업사회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려는 노력은 서구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고, 민족문화의 가치혼란을 일으켜 행동의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치관과 규범의 혼란은 출세주의와 물신주의,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이기주의 풍조와 함께 불신감과 소외의식에 빠지게 한다. 1995년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발표한 지난 10여년간의 농촌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변화추이를 보면, 법질서에 대한 불신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정치적 소외도 심화되었으며, 민주주의 이념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변화되었으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집합주의적 경향도 강하게 보여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이 심화되었다. 한편 부모나 조상에 대한 태도는 더욱 전통적인 태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근대적, 합리적 가치관의 수용은 더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국가관 및 사회관, 현실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등에서도 더욱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일이다.

2. 농촌지역 청소년 성의식 실태

가. 조사개요

1) 조사시기

1997년 8월~9월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성의 입장에서 청소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월경현상이 시작되는 평균적 시기인 14세부터 19세까지의 중 ·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경기 여주 대신면과 충남 아산 둔포면에 소재한 8개 학교의 남자중학생 264명, 여자중학생 201명, 남자고등학생 138명, 여자고등학생 153명 등 전체 756명을 대상으로 했다.

3) 조사방법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학생들과의 일 대 일 면접조사가 필요했으나 설문 내용상 학생들이 성과 관련한 생각과 경험들을 직접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원이 각 학급으로 들어가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수거하는 집단면접방법을 선택했다.

4) 조사내용

- o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거주지, 거주형태, 부모직업, 학교성적 등
- o 성의식: 성의 개념, 성역할과 특성, 성행위에 대한 인식,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 등
- o 성관련 행동: 이성교제 및 이성에 대한 태도, 성행위 및 성폭력피해 경험 등
- o 성교육: 성지식 통로, 학교 · 가정에서의 성교육,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
- o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방법 등

5) 자료분석

조사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해 전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크게 성별과 학교급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주 변인으로 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설문응답자는 총 756명으로 남학생 402명, 여학생 354명이며,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465명, 고등학생이 291명이다. 살고 있는 곳은 마을이 50.7%로 가장 많았고 면 28.0%, 시내 15.5%, 읍 5.8%로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친척집에 거주하거나 형제자매나 친구와 함께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이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 활동이 더욱 자유로움으로 인해 성관련 경험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했으나 워낙 빈도율이 낮긴 했지만 분석결과 거주형태가 전체 문항에 있어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직업은 절반 이상이 비농업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경우 농업종사자는 48.2%, 비농업인 경우는 49.8%, 무직 2.0%이며, 어머니의 경우 농업이 40.8%, 비농업 45.2%, 무직 14.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직업을 무직으로 한 것은 실제 농사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주부(가정주부는 직업으

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학력과 학교성적은 농촌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 및 성문제 해결방안 등과의 변인관계를 측정해 보기 위해 문항에 포함시켰으나 분석결과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 의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2) 성의식과 태도

(1) '성'의 의미와 개념

농촌청소년들에게 '성'이란 어떤 것일까. 성이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과 이성교제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육체적 행위 27.9%, 신체구조 19.7%, 생리작용 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성'을 육체적인 행위에 더 가깝게 연상하는 것에 비해 여학생은 육체적인 행위 이후의 임신과 출산문제에도 남학생보다 관심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육체적인 행위를 연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에 대한 느낌에서는 흥미롭다 42.4%, 부끄럽다 31.5%, 아름답다 16.3%, 더럽다 9.8% 순으로 나타나 농촌청소년들은 '성'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93)에서 '성은 감추어야 할 인간의 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의 답이 도시는 5.1%인 것에 비해 농촌은 19.9%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성을 흥미롭게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부끄럽거나 두렵고 더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성을 흥미롭게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농촌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맨처음 월경이나 몽정을 했을 때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두렵고 당황스러웠다, 부끄러웠다, 더럽고 추한 느낌이었다)이 29.8%인 것에 비해 긍정적인 느낌(신비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자연스러웠다)이 37.6%로 더 높았다. 다만 남학생은 생리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는 반면 여학생은 두렵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사랑과 이성교제, 그리고 육체적인 행위 등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성에 대한 느낌이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성별차이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사춘기의 신체적·정신적인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과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을 통해 사랑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전, 성숙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농촌사회가 점차 생활환경면에서 도시적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한편 성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비행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여성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의식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어,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성을 흥미롭게 여김과 동시에 감추어야 할 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 성역할과 특성에 대한 인식

농촌청소년들은 성역할에 있어 청소나 빨래, 밥짓기, 집안꾸미기와 같은 가사일이나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일은 여성의 역할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못박기와 전기배선은 남성의 역할로, 돈을 벌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일, 자녀교육, 신문이나 뉴스보기는 남녀 모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돈 버는 일과 사회활동, 가사일과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점차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인식이면서 한편 오히려 아직도 성에 따른 차별대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학생들의 민감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성특성에 대해서는 용감하다, 정의롭다, 씩씩하다, 자상하다, 지도력이 있다, 입이 무겁다는 50% 이상이 남성의 특성으로, 아름답다, 부드럽다, 섬세하다, 감각

적이다, 질투심이 많다는 50% 이상이 여성의 특성으로, 이해와 양보심이 많다, 진실하다, 따뜻하다, 진취적이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의 특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전 문항에 있어 남학생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성특성 인식에 있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97.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13] 도시에 비해 농촌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여성은 가사역할, 소비활동, 육아 및 자녀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남성은 생산관리와 대외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성역할과 특성에 대해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된 과정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식에 입각한 묘사가 대부분이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성이나 신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라는 것이 확고하고, 미래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남녀 역할의식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⑶ 이성교제시 성행위에 대한 의식과 태도

이성교제는 농촌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84%이상이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25.9%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48.4%가 원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는 55.6%가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사랑한다면 남녀 모두 괜찮다 34.7%, 여자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5.5%, 사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7%, 남자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1.5%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 모두 결혼 전 육체적 순결은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순결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고 남학생의 경우 사랑하면 남녀 모두 괜찮다는 응답도 42.6%로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경우 사랑한다면 남녀 모두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7%로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의 3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 남녀 모두 '결혼 전 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82.8%(남학생 78.3%, 여학생 87.6%)이고, '여자는 꼭 순결을 지켜야 한다'가 남학생 58.3%, 여학생 72%, '남자는 꼭 순결을 지켜야 한다'가 남학생 48.5%, 여학생 67.8%로 나타난 것과[14] 비교해 볼 때 남녀 공히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여학생이 순결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농촌청소년이 결혼 전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 더욱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성교제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에서는 손잡기 78.1%, 키스하기 62.4%, 껴안기 50.7%, 몸만지기 12.8%, 성교 8.2%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손잡기와 껴안기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용도가 높았고 몸만지기, 성교에서는 여학생이 각각 3.4%, 1.1%로 남학생에 비해 수용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여학생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만 수용의사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농촌청소년은 전 문항에 대해 수용의사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다[15].

실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 45.2%가 성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28.9%의 학생들이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응답했다. 이성교제시의 신체적인 접촉행위에서도 손잡기는 72.8%가 경험했으며, 키스하기, 껴안기는 10명 중 3명 정도가 경험했고, 몸만지기는 10명 중 1.8명이 성교는 10명 중 0.9명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선행조사결과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사회가 봉건적인 관습을 중시

하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농촌사회 내에서 결혼식이라는 절차없이도 동거나 사실혼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가정이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약한 점,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점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행동의 제약이나 규율의 적용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성가치관과 농촌사회의 성규범과의 갈등의 표출이기도 하다. 성에 관한 관심을 비행시하고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의 성규범으로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태도를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종합상담실 등의 활동이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접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 무엇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촌청소년들의 성의식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4) 성폭력에 대한 의식과 태도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건드리거나 밀착시키는 가벼운 성적 추행, 성적 희롱, 강제로 키스하거나 심한 추행, 성기노출, 전화나 통신, 대화상의 음담패설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를 하게 하였으나, 농촌청소년들은 추근거림, 음담패설 등 비교적 가벼운 성피해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30%의 학생들이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학생의 39.8%는 '겁난다', '분노·화가 난다'는 비율이 높아 성폭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방어적임을 알 수 있었고, 반면 남학생의 27.8%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나도 해보고 싶었다'라는 응답도 10명 중 0.8명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에서도 여학생의 78.0%가 '끝까지 반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거부의사가 강했던 반면, 남학생 10명 중 2명은 '부끄러우므로 가만히 있겠다', '따라하겠다'라고 해 성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기보다는 무관심하거나 흥미롭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촌청소년들의 5.5%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29.1%는 중학교 이전에 이미 여러 형태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음담패설과 전화나 통신상의 음란성메시지가 가장 많았고 성기노출과 추근거림, 성교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주로 집이나 학원, 학교 등 일상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어났으며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5.2%이지만 많은 경우 이성친구나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피해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 43.1%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응답했고, 피해 이후에도 별 느낌이 없었다라고 응답해 실제 성폭력에 대한 농촌청소년들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더욱 그러했는데 반해 여학생은 성폭력 대응방법이 주로 피하거나 화를 내며 따졌다라고 응답했고 피해 이후의 느낌에서는 화가 나거나 부끄러웠다라고 응답해 성별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37.3%나 되었는데 피해 유형이 가벼운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고 소문이 나거나 비난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 유형에 따라, 가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농촌청소년들의 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많은 농촌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대응하는 태도나 사후 처리가 매우 소극적이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이렇게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과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나 책·잡지 등에서 묘사되는 가학적인 성행

위가 성폭력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는 성폭력을 당해도 괜찮지만 여자는 일생을 망친다'는 잘못된 사회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상대방의 성을 동시에 중요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폭력의 개념과 대응방법, 그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이란 생명, 사랑을 전제로 쾌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교육이 절실하다.

(5) 기타 경험 실태

위의 결과 이외에도 비교적 그 비율이 낮기는 하나 약물복용 0.8%, 전화나 통신에서의 음란성 메시지 3.3%, 성폭력 가담 0.4%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도 22.8%가 경험하고 있고 10명 중 7명 정도는 음란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0명 중 9-10명은 음란물을 보았으며, 10명 중 1명 정도는 성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나 혹은 남녀의 실제 성행위가 묘사된 장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써[16]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면서 실제 모방행동을 하게 되거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잘못된 성행위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실제 조사결과 책이나 잡지, 비디오 등을 통해 성행위 장면을 본 이후에 '자주 보고 싶다' 20.9%, '정신집중이 안된다' 20.6%, '그대로 해보고 싶었다' 7.4%로 음란물은 농촌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음란물은 농촌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친구와 같은 손쉬운 경로를 통해 돌려보는 일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청소년을 맹목적인 수용자의 위치로 제한시키기보다는 유해매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겠다.

3) 공식적 영역에서의 성교육 실태

(1) 성지식 통로와 의논 대상

농촌청소년이 성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통로를 제시하여 그 비율을 알아본 결과 친구나 선후배가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송매체, 책과 잡지, 학교, 만화, 컴퓨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화 음성정보와 스포츠신문까지 포함하여 보면 일반 대중매체로부터 성지식을 얻는 비율이 49% 정도이고, 그 중 방송매체와 책, 잡지가 76.3%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나 선후배가 중요한 성지식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농촌청소년들에게 TV나 라디오, 비디오, 책 · 잡지 등의 대중매체는 중요한 성지식 통로가 된다. 학교로부터의 성지식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18.2%를 차지해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성지식 통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서의 성지식은 5.7%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친구와 책 · 잡지, 방송매체 순으로 성지식을 얻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학교가 가장 중요한 성지식 통로이고 다음으로 친구와 방송매체, 책 · 잡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로부터 성지식을 얻는 비율도 남학생에 비해 훨씬 높았다.

농촌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한 고민을 누구와 의논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 이성갈등 2) 임신의 경우를 예로 가정하여 질문하였다. 이성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동성친구에게 의논하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와 당사자인 이성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대답이 각각 11.3%, 10.8%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임신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머니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상담소가 22.1%, 다음으로 동성친구, 이성친구, 선생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청소년은 성고민 문제를 주로 친구와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임신과 같이 그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의논 상대를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학교 성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학교 모두 주로 가정시간이나 생물시간에 담당교과 교사가 교과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1년에 1회 정도 슬라이드를 상영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또한 관련 교과목 교사들 대부분은 자신들조차 한 번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험이 없고, 학교에서 별도의 재량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응답자의 83.4%가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44% 정도가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해, 학교가 매우 효과적인 성지식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받은 성교육 내용을 표시하게 한 결과 신체구조 84.1%, 생리작용 81.3%, 성역할 48.7%, 임신·출산 48.0%, 성폭력 예방 33.9%이고, 그밖에 성심리, 이성교제, 자위행위 순으로 나타나 주로 신체변화에 관한 지식 위주임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는 성행위와 그 결과가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 간의 예절, 성폭력과 예방, 임신·출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이 성행위와 그 결과, 신체구조를 더 알고 싶어하는 데 비해 여학생은 성폭력과 예방, 임신·출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관심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선행문헌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행위를 경험하고 있고, 학교 외의 통로를 통해서도 많은 성지식을 얻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과과정 중심의 학교 성교육이 생물학적 지식 위주의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청소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물학적인 면과 더불어 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년 단계에 맞게 각 교과목마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 가정에서의 성교육

농촌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45.9%정도였는데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내용은 '과학적인 지식'이 19.0%로 가장 많았으며 '윤리·도덕적인 내용' 12.6%, '경각심을 주려는 내용' 3.6%로 나타났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윤리·도덕적인 성교육을 받는 기회가 더 많았다. 남학생은 가정에서 성교육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응답이 63.3%이고, 부모에게 성과 관련하여 질문한 것도 27%정도로 남학생들은 가정에서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여학생들의 76%가 부모님께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머니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여학생들은 비교적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께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2.9%나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과 관련한 자녀의 질문에 대해 44.2%가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고, 피상적으로라도 가르쳐 준 것을 포함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학력이 전문대 졸 이상인 경우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는 응답이 58.4%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피상적인 내용이라도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여러 통로 중 청소년들이 가정으로부터 성지식을 얻는 비율은 5.8%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것은 성에 관한한 되도록 모르는 것이 좋다는 농촌가정의 봉건의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농촌가정이 농업이든 다른 직업이든 대부분 낮고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4) 여가 활용

조사결과 많은 농촌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가족이 교양오락에 사용한 비용은 1970년의 1,246원에서 1992년에는 70,165원으로 명목 액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수치는 도시가구 여가비용의 13.3%에 불과한 것이다[17]. 여가

활용은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속시키는 활력소이며, 자녀사회화의 물질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농촌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은 질·양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연극, 박물관 견학, 문화시설 견학 등의 문화혜택이 적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 조사응답자의 47.2%나 되는 많은 청소년들이 주로 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운동과 취미생활, 오락실과 당구장, 노래방 출입 등으로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사한 8개 학교 모두 주변에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다방,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의 시설이 많았으며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농촌청소년은 도시에 비해 진학을 위해 보충학습이나 학원공부로 매이는 일이 많지 않으며, 학업 이후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락·놀이시설이 집중된 시내나 인근 도외지로의 출입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농촌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며 동시에 비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Ⅲ. 결론

1. 농촌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확립을 위한 제언

가. 올바른 성의식 지도를 위한 교육적 방안

1)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성의 개념, 남녀평등의식에 기초한 성의 역할, 성적 욕구, 임신과 출산, 성행위와 그에 따르는 결과, 피임, 성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성지식은 쾌락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황폐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모나 학교교사를 통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다. 마지막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과 상대방의 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적 행동에 관한 것까지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신의 몸의 변화와 성적 호기심에서 생기는 고민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자신의 경험·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한국사회와 농촌사회의 성문화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환경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한다.

5) 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6)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나의 미래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친구, 가족, 이웃, 학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나.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1) 가장 먼저 농촌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사회·학교·가정환경이 물질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농촌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농촌사회의 발전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2) 그동안 농업후계인력이라는 측면으로만 한정되어온 농촌청소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농촌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다양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대된 기회를 통해 농촌지역 청소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그러한 생활의 자신감은 자신의 성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3) 농촌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규범은 성에 대해서 음성시하는 풍조를 갖게 하는 한편 현대사회의 유해매체와 환경에 의해 상품화되어가는 성문화가 농촌사회 내부로 유입되면서 농촌사회는 세대간의 성가치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문화는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인격적 성숙과 정신적·육체적 욕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성에 대해 무조건 금기시하는 태도보다는 청소년시기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에 따르는 성적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올바른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농촌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영역인 학교로부터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초등학교 때나 그 이전 시기에도 성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교과목에서 성에 관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교과목에 따라 중복되고 피상적이던 내용을 취학 이전 시기부터 초·중·고 각 급별로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하고 연관성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성교육 읽기 교재가 발간되긴 했으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근거한 차별화된 성교육 교재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각 지역단위에서 상담 및 조사를 통한 성교육 교재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일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연수내용에 성교육 일반연수 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가족협회에서 매년 전국단위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에 각 도별로 10명 정도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 연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며, 교사들간의 자연스러운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일도 바람직하겠다.

5) 성폭력상담소나 청소년종합상담실 등의 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가족협회에서 '자녀성교육 부모교실'이라는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의 부모들은 정보가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재고하여 사회교육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 부모성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더불어 농촌가정의 부모세대의 학력이 대부분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내 성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모용 성교육 지침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다.

6)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및 매체개발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성교육이 강의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들에게 지루함을 주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토의식 성교육이 청소년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물이나 사례연구를 통한 현장교육 방법도 피교육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현실적인 성문제에 대해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괘도나 소책자, 팜플렛 등의 읽기자료와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필름 등의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학교교육전산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농촌지역에서도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시설을 확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성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교육 읽기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관련한 경험과 고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 성교육 캠프」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8) 농촌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역

내 복지시설과 함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내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폐교를 이용해 체육·오락시설을 마련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문화유산답사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부족한 학습보충이나 기술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지역의 문화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9)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종합상담실 등의 활동범위를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성교육 및 상담,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농촌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10) 청소년 성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의 분산되어 있는 활동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청소년과 관련한 주무부처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상담, 지도, 교육, 프로그램 및 매체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이 각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다. 학교 성교육에 관한 업무는 각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내 담당자가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 교육쯤으로 사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교육이 상담, 지도, 교육 활동 등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 시, 군 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 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보다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가 필요하겠다.

인용문헌

1) 김옥순, 1996,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pp.72-74.
2)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 1983, 교육부.
3) 현주, 박효정, 이재분, 1993,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7.
4) 상게서, p.31.
5) 상게서, pp.148-149.
6) 김흥주, 1996, 농민의 가족생활과 청소년의 불균형 사회화 문제, 농촌사회 6집, p.42.
7) 상게서, p.43.
8) 정명채 외, 1995,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제 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경기사회지표, 1996.
10) 김흥주, 전게서, p.53.
11) 채용학, 1994, 도서·벽지 국민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pp.72-73.
12) 김동일 외, 1994, 한국 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p.173.
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년,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이 의견에 있어 일본은 84.6%, 미국은 77%, 영국은 62.3%, 서독은 77.7%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현주, 박효정, 이재분, 전게서, p.102.
15) 상게서, p.132.
16)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컴퓨터와 청소년문화.
17) 김흥주, 전게서, p.54.

참고문헌

1. 강지원 외, 1997, 음란문화에 노출된 청소년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 경기도, 1996, 경기사회지표.
3. 조혜정 외, 1995, 청소년과 성,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4. 권일남 외, 1996, 농어촌청소년 문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6집, 농촌사회학회.
5. 김지혜 외, 1997,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6. 김지혜 외,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7. 김희선, 1994, 청소년법제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8. 문화체육부, 1997, 전국 시도별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현황(자료).
9.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0. 유현숙, 1995, 농어촌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포럼.
11. 이선재, 아태지역의 청소년개발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12. 인천성폭력상담소, 1998, 성교육 강사 양성학교 자료집.
13.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건강한 성 만들기-중학생 성교육 지침서.
14. 한국여성개발원, 1990, 농촌여성의 자녀교육, 우리농촌과 여성.
15. 현주, 박효정, 이재분, 1993,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